*영어어문교육 16*권 **3**호 **2010**년 가을

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연구학교 교사의 시각에서

남 경 숙*
(개림초등학교)
조 윤 경**
(부경대학교)

Nam, Kyung-Sook & Cho, Yunkyoung. (2010). Reflections on the problems with English immersion programs: Perspectives of in-service teachers at primary English immersion school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6*(3), 207-229.

The present study has sought to explore the critical issues of English immersion education through the voices of the four elementary teachers who have recently taught at immersion programs under the guidance of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The interview data with three teachers and the teaching journals of one teacher were analyzed and categorized into two emergent themes: (1) current difficulties in the immersion programs and (2) possible problems with the implementations of immersion programs in all public schools. Specifically, the first issue included teachers' inadequate teaching skills for immersion programs, accumulated learning losses, and lack of immersion class hours. The second issue included workload imposed on immersion program teachers, promotion of private education, learning losses of other subjects, and administration for show. Finally, pedagogical implications are suggested.

[immersion education/content-based instruction/primary English education, 몰입교육/ 내용중심 언어교육/초등영어교육]

I. 서론

최근 국제화·지식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영어 의사소통능력 함양이라는 목표 아래 영어 공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입안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에 따라 올해부터 개정된 영어교육 과정이 적용되고 있

* 제1저자 ** 교신저자

으며, 교사 연수 강화, 영어전용교사 자격 제도 및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제도 도입, 그리고 학생용 국가영어능력 평가 시험 시행 등으로 영어 교육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욱 강화된 영어교육정책 중에서 특히 영어몰입교육(English immersion programs) 또는 넓은 의미의 내용중심 영어교육(content-based instruction)을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표는 많은 관심과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국민의 거센 반대에 의해 곧 그 발표는 취소되었지만, 여전히 영어몰입교육[1]은 학교 또는 각 시도 교육청 단위의 지원으로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방과 후 수업, 특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도되고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에서는 2007년에 5개 초등학교와 1개의 중학교가 내용중심 영어교육을 시범 실시하였고, 2009년부터는 12개의 초·중등학교가 영어 교수·학습방법 정책연구학교(이하 '영어연구학교')로 확대 선정되어 내용중심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중심 영어교육은 선정된 학교별로 2~3년에 걸쳐 현재까지 수업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영어 교수·학습방법 정책의 일환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 선정된 영어연구학교는 내용중심 영어교육을 수학과 과학 등의 교과에 적용하여 실제 수업 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검증하고 있다(분포초등학교, 2008; 센텀초등학교, 2008; 화랑초등학교, 2008).

하지만, 이러한 실효성 검증보다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는 바로 영어연구학교에서 실제 영어 몰입교육을 운영했던 교사의 경험과 인식이다. 몇몇 선행연구들이 일반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박선호, 2004, 2009b; 박준언, 박선호, 2007), 실제로 교사들이 영어몰입 수업을 실시하면서 어떤 경험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실제 영어몰입수업을 담당한 교사들의 의견을 묻고 분석한 연구들(박선호, 2008, 2009a; 박선호, 최희경, 2009)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교사들에 국한되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소재 영어연구

1 영어몰입교육은 내용중심 영어교육의 한 모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실시된 많은 연구들에서 '영어몰입교육'과 '내용중심 영어교육'의 용어는 통합 형태나 주제 중심 또는 몰입교육의 의미로 구분 없이 사용되어 왔다(강용구, 1999; 강후동, 강혜영, 2009; 민찬규, 2008; 박선호, 2008; 박준언, 김익상, 박선호, 2008; 정동빈, 김지숙, 2008; 최미정, 정영숙, 2009; 최숙희, 2001; 한문섭, 현석분, 2008). 또한 제주 특별자치도나 전국 4개의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어로 진행하는 타 과목 적용수업의 모든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박준언, 박선호, 2007). 본 연구의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부산광역시에서는 2007년도에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지정한 영어 교수·학습방법 정책연구학교에서 '영어몰입교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그 다음해인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내용중심 영어교육'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어몰입교육'과 '내용중심 영어교육'의 용어를 부득이하게 논문 내용과 연구 대상의 범위 및 상황에 맞게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다만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정 연구학교에 대한 논의에서는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수업 내용에 맞게 '내용중심 영어교육'으로 명기하였다.

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초등영어몰입교육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영어연구학교 교사의 수업일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영어몰입교육의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외국어 몰입교육

몰입교육은 내용중심 언어교육의 한 유형으로서, 일반 정규 과목의 수업을 목표 언어로 진행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목표 언어 입력 자료에 완전히 몰입되도록 함으로써 과목 내용의 학습과 함께 목표 언어의 자연스러운 습득을 도모하는 학습 방법이다(Lambert & Tucker, 1972). 몰입교육의 학습 목표는 교과 내용의 이해에 있으므로, 교과 지도에 사용되는 외국어는 학습 활동의 목표가 아니고 교수 매개의 수단이 된다(Snow, 2001). 몰입교육은 외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학습방법이라는 인식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영어를 배우는 일반 영어 학습과 혼동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몰입교육은 그러한 집중영어 프로그램(intensive English course)과는 달리 특정한 교과 과정 내에서 체계적으로 교과내용을 외국어로 학습함으로써 학습자가 교과내용을 이해하고 아울러 외국어까지 효과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특성을 갖는 학습 방법이다.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몰입교육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 외국어를 교과목 수업의 매개로 사용한다. 둘째, 교과 과정은 몰입교육이 시행되는 지역의 일반 교과 과정을 따른다. 셋째, 교과 과정에 학습자의 모국어 학습을 강화해주는 부분이 포함된다. 넷째, 모국어와 외국어 중 어느 한 언어도 약화되지 않는 가산적 이중 언어사용(additive bilingualism)을 목표로 한다. 다섯째, 학습자가 목표 외국어와 접할 수 있는 곳은 대개 교실로 국한되어 있다. 여섯째, 학습자는 처음에 모두 비슷한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갖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일곱째, 교사는 이중 언어 사용자로서 학습자의 모국어와 외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다. 여덟째, 교실에서의 문화적 환경은 학습자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환경을 따른다(Swain & Johnson, 1997).

몰입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목표 언어를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개발함과 동시에 모국어 능력과 학습 성취도에 있어서도 모국어로만 수업을 듣는 일반 학습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Brinton, Snow, & Wesche, 1989: Snow, Met, & Genesee, 1989). 이러한 몰입교육의 효과는 가산적 이중 언어 강화 원리(additive bilingual enrichment principle)로 제시된다. 이 원리에 따르면, 아동 학습자가 두 가지 언어를 습득할 경우 한 언어만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출하는 것에 훨씬 더 유연하고 우월한 언어 능력을 갖게 되고 언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상위언어적

(metalinguistic) 이해 기능도 발달하게 된다(Cummins & Swain, 1986).

이러한 주장은 또한 빙산비유이론(Iceberg Theory)에 의해서도 제시된다. 빙산비유이론은 Cummins(1980, 1984)의 공통 기저 언어능력 모형(Common Underlying Proficiency Model)에 바탕을 두어 이중 언어 사용자의 양 언어를 두 개의 빙산에 비유한다. 서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이중 언어자의 두 언어 체계도 기저에서는 동일한 공통 언어처리체계에 의하여 작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제 1 언어 또는 제 2 언어로 진행된 다양한 언어활동들은 그 아동의 전체적인 인지체계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김규현, 서경희, 박용예, 2000; 박선호, 2006).

2. 부산광역시교육청 내용중심 영어교육 정책

현재 부산에서는 12개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영어 교수·학습방법 정책연구학교로 선정되어 내용중심 영어교육 적용을 통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방안을 시범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들은 공통적인 연구 과제로 내용중심 영어교육을 위한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내용중심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교과에 적용하고 있다. 이 중 신곡초등학교를 비롯한 화랑, 대평, 대저, 금양, 센텀, 연지, 학사, 예원, 월내초등학교의 10개 초등학교에서는 수학 교과 혹은 과학 교과 영역을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수업 시수를 확보하여 내용중심 영어수업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러한 영어공교육 정책은 영어몰입교육으로 출발하여 2008년 이후 현재까지는 내용중심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정 정책연구학교로 선정되어 내용중심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센텀 초등학교의 예를 제시해 본다. 센텀 초등학교는 '내용중심 영어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의사소통능력의 싹 틔우기'라는 주제하에 3년 동안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하였다. 2008년도 시범학교 운영보고서(센텀초등학교, 2008)에 의하면 3~6학년 학생들에게 영어 노출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수학과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교과 시간 및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내용중심 영어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으며, 교사 또한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시기였던 2009년에는 3학년 이상의 학급을 대상으로 학년당 2학급씩의 선도학급을 두어 총 8명의 내용중심 선도교사[2]가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연간 60시간 정도의 수업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내용중심 영어교육 실천을 위한 친화적

[2]본 연구에서 '선도교사'는 현재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선정한 영어 교수·학습방법 정책연구학교에서 3 학년 이상의 특정 학급을 담당하여 수학이나 과학으로 내용중심 영어수업을 주당 한두 시간 이상 직접 수업하고 있는 담임교사 또는 영어전담교사를 지칭한다.

인 영어환경을 조성하고 내용중심 영어수업 능력 신장을 위한 교사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있었다.

내용중심 영어교육 적용을 통하여 센텀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영어노출 기회를 확대하고 영어를 의미 있는 상황에서 도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었음을 시범학교 운영 보고 결과서에서 밝혔다. 덧붙여 교사들은 내용중심 영어교육 동아리를 조직하여 각 학년 선도반 수업공개, 적용수업, 수업 협의회, 동료장학, 수업전개에 따른 발문 훈련 등을 통하여 내용중심 수업기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보다 나은 후속 연구학교 운영을 위하여 내용중심 영어교육 교재의 개발 보급과 내용중심 영어교육 전문교사 양성, 원어민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제언했다.

3. 선행 연구

최근 국내 초등영어교육현장에서 영어몰입교육 또는 내용중심 언어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영철, 2005; 김정렬, 엄지현, 2006; 박기화, 2003; 박선호, 2008; 신연옥, 2000; 이선아, 문태혁, 2004; 이희숙, 최지은, 2000; 정동빈, 김지숙, 2008; Lee, 2006). 이 밖에도 현장 초등교사들이 자신의 학교 현장에서 체육, 실과, 미술과 같은 교과목을 통하여 내용중심 언어교육을 적용한 과정과 결과를 석사논문으로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박응준, 2008; 방상미, 2001; 변경미, 2008; 최연희, 2004; 최태규, 2008; 허인선, 2004).

이와 더불어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인식을 설문 조사한 연구들 또한 몇몇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박선호, 2004, 2009b; 박준언, 박선호, 2007; 조윤경, 남경숙, 2009). 예를 들어, 박선호(2009b)는 초등교사 1,082명, 초등학생 484명과 초등학부모 731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몰입영어교육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관찰되었으며 몰입 영어교육에 관한 찬성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잘 모르겠음’이 유사한 비율로 응답되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몰입교육을 당장 실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향후 일정한 준비가 이루어진 후에는 몰입수업이 가능하거나 또는 몰입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위의 선행연구들은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일반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실제로 초등영어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몰입교육현장을 관찰하거나 몰입교육 담당 교사들의 의견을 분석한 논문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 예외가 박선호(2008), 박선호와 최희경(2009), 한문섭과 현석분(2008) 등의 연구이다. 한문섭과 현석분(2008)은 2회에 걸쳐 초등학교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영어 몰입교육을 실시한 공개수업을 참관 및 녹화하여 분석하고, 초등학교에서 몰입교육의 경험이 있는 교사 3명, 교장 1명, 학부모와 학생 각각 1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연구자들은 우선 공교육에서는 완전 몰입교육보다는 부분 몰입교육을 적용할 것과

사전 어휘 지도를 위한 시수를 확보할 수 있는 담임교사가 몰입교육을 담당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몰입교육 해당 과목의 교과 내용 전달에 필요한 어휘 및 표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참고자료의 개발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박선호와 최희경(2009)은 몰입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교사 5명을 선정하여 이들이 몰입수업을 하면서 느끼고 관찰한 것을 기록한 교수일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영어 교재 및 수업 계획안 작성 등의 문제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맥락에서, 개별교사가 혼자 몰입영어교육을 준비하고 실시하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국가 수준의 또는 최소한 교육청 단위에서 적절한 몰입교재를 개발해 줄 것과 몰입교사들에 대해 지원이나 보상을 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몰입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연구회 등을 통해 다른 교사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상호 도움을 주고 받는다면 더 성공적인 몰입교육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하였다.

박선호(2008), 한문섭과 현석분(2008), 박선호와 최희경(2009) 등의 연구는 현장에서 직접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들의 수업을 관찰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제공함으로써 몰입교육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정책결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렇지만 이들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교사들에 국한되어 이루어져 왔으므로,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몰입교육 현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국가적인 정책으로 영어교육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연구하고 시범적으로 적용·실시하고 있는 좀 더 많은 현장 교사들의 인식 분석 결과는 몰입교육을 공교육 현장에 적용하려는 일련의 교육정책 입안과 그 실행 방안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 영어연구학교에서 몰입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의 심층면담 자료 및 교사의 수업일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담 조사 및 수업일지 조사로 이루어진다. 우선 면담 조사는 연구자의 관점으로 만들어진 설문지를 통해서 들을 수 없는 연구 참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음으로써 연구 과제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이해를 이끌어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교사의 수업일지는 구체적으로 실제 수업현장에서 영어 몰입교육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부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4명의 여교사이다. 이들 교사들은 자료수집 당시 2년 이상 내용중심 영어수업 선도교사를 맡아서 실제 수업 현장에서 수학 교과 또는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몰입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들이다. 구체적으로, A 교사는 교육경력 25년의 여교사이다. 영어연구학교에서 담임교사로서 선도교사를 맡아 내용중심 영어수업을 3년째 적용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교육청 수업시범발표 5회, 영어수업대회 2회, 과학영재 영어수업발표 3회, 미국 파견연수 1개월, 영어내용중심교재(수학) 제작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오랜 교육경력에서 비롯된 노련한 수업 기술과 영어 실력을 접목하여 학교 내에서 내용중심수업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는 교사이다.

B 교사는 초등교사 경력 30년으로 영어연구학교에 2년간 근무하면서 영어몰입수업을 적용한 경력이 있는 교사이다. 자료수집 당시에는 특별영어초빙교사로 선정되어 일반학교의 영어전담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부산시교육청 수업시범발표 3회, 영어수업대회 2회, 최고지도자과정 연수, 필리핀 파견연수 2개월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B 교사는 입출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영어 환경에서 스토링텔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급에 영어 동화책을 항상 구비하여 아동들에게 영어독서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C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 경력 25년으로 자료수집 당시에 2년째 영어연구학교의 내용중심수업 선도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담임교사로서 내용중심 선도학급을 맡아 과학 교과를 영어몰입수업에 적용하였다. 부산시 교육청 수업시범발표 2회, 미국 파견연수 6개월, 영어내용중심교재(과학) 제작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D 교사는 수학과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내용중심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수업에 적용하고 있는 교사이다. 영어전담교사로서 선도교사를 맡아 3~6학년에 걸쳐 내용중심 영어수업을 하고 있었다. 교사 경력 4년 및 영어전담교사 경력 3년째이며, 부산시교육청 수업시범발표를 2회 가졌다. 그는 비담임인 영어전담교사로서 내용중심 영어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과 문제점, 그리고 교사 자신의 고민을 진지하게 수업일지에 기록하였다.

2. 자료 수집 절차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3명의 교사(A, B, C 교사)와의 면담자료와 D 교사의 수업일지이다. 선도교사의 수업일지는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간에 걸쳐 주당 3~4회에 걸쳐 작성되었다. 수업일지는 D 교사가 내용중심수업을 하면서 겪었던 기쁨과 슬픔, 교사로서의 소신과 책임감, 수업 경험이 부족한 신규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 영어몰입수업에 임하는 교사의 마음가짐, 자신의 영어몰입 수업기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기록한 것이다(수업일지의 예시는 <

부록> 참조). 수업일지 분석은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어몰입 교실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수업에 임하는 선도교사의 솔직한 마음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면담 조사는 2009년 8월과 9월에 걸쳐 반구조적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사에게 주어진 면담 질문은 본 연구자의 설문조사 연구결과(조윤경, 남경숙, 2009)를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사전에 준비된 질문뿐만 아니라 면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상에 따라 다양한 질문이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면담의 전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면담 시간은 제한을 두지는 않았고 연구 참여자가 멈추길 원하는 지점에서 면담을 종료하였으며, 교사의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회로 제한하였다.

면담 자료는 모두 녹음을 하였고 면담 후 전사를 하였다. 그리고 전사물(transcript)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였는데, 이 과정은 연구 참여자에게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확인 과정이 끝난 후에 연구자는 면담자료 및 수업일지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 후에 면담 분석 결과를 연구 참여자와 다시 확인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영어연구학교의 내용중심수업 선도교사 3명과의 면담 내용과 내용중심수업 선도교사 1명의 수업일지를 분석하여 중요하게 부각된 주제를 찾고자 하였다. 주된 주제들은 크게 두 가지로, 세부적으로는 7개의 주제로 요약될 수 있다.

(1) 영어연구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점
  a) 교사의 부족한 영어몰입 수업 능력
  b) 학습자의 개인차로 인한 누적되는 학습 결손
  c) 부족한 영어몰입수업 시수

(2) 영어몰입교육 확대 실시에 대한 우려
  a) 영어몰입수업 교사의 과도한 업무
  b) 사교육 조장 및 계층간 위화감 초래 가능성
  c) 타교과 학습 결손
  d) 전시적 행정 정책

1. 영어연구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점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내용중심영어교육 혹은 영어몰입교육에 대해 선도교사들은 교사의 영어몰입 수업능력, 학생들의 수준차이와 계속되는 학습결손누적 그리고 영어몰입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애로점을 토로하였다.

1) 교사의 부족한 영어몰입 수업 능력

시범적으로 영어몰입수업을 적용하고 있는 교사들은 면담과 수업일지에서 영어몰입 수업능력에 대하여 많은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영어몰입 교육을 현장의 수업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교사가 기본 영어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수학이나 과학 등 어려운 교과를 그 특성에 맞춰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하였다.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고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준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서 교재 연구를 위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교사가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있다고 해도, 특히 과학이나 수학을 가르칠 때 특정 학습 모형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구조화 시켜서 개념화 해야 하고 그래서 그걸 학습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영어에 치중하다 보니까 학습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큰 문제점이죠. (A 선도교사: 2009년 9월 15일)

> 분명히 전체 활동을 할 때에는 의욕적이고 적극적이라서 학생들의 수업목표 달성률이 높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많은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아직 수업을 조직하고 가르치는 내가 경력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 가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 나의 교수기술 부족인 것 같다. 특히 수학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대책이 서지 않는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아동들에게는 개별로 지도하여 수학적 개념들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D 선도교사: 2008년 7월 9일)

교사의 영어능력뿐만 아니라 영어몰입 수업능력은 영어몰입교육의 현장 적용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는 수업을 설계하고 직접 운영하며 학급의 학생들과 활동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영어몰입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능숙한 영어의사소통 능력은 물론이며, 영어몰입수업에 대한 전문적인 수업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사의 영어몰입 수업능력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교육 정책자의 지속적인 지원 및 교사

자신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교육연구학교로 선정되어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시범적으로 개척해 나가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재 연구를 위한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이며, 교사의 수업 능력에 대한 자기 연수도 꾸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습자들이 영어와 교과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면 그 노력은 헛된 것이 아닐 것이다. 아래의 수업일지는 D 선도교사가 내용중심의 수업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교사로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수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진지한 태도를 보여준다.

> 역시 수업을 하기 전에 수업 방법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하고 자료 준비도 많이 한 수업은 학생들의 만족도와 함께 교사의 만족도도 높여주는 것 같다. 내가 투자하고 고민한 시간만큼 학생들이 수업을 그만큼 잘 따라줬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다.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하는 모습을 보니 개인적으로 큰 만족을 얻었다. 하지만 보통 때는 수업 외적인 부분 때문에 교재 연구가 부족할 때가 많은 자신에 대해 반성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오늘 수업으로 교재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겠다. (D 선도교사: 2008년 5월 20일)

2) 학습자의 개인차로 인한 누적되는 학습 결손

영어몰입수업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은 학습자 개인차와 그에 따른 학습결손 누적이었다. 학생수가 30여명이 넘는 다인수 학급에서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수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영어몰입수업의 특성상 일반 교과의 학습 결손뿐만 아니라 영어능력의 개인차까지 파악하여 수업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직접 설계하고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교사들은 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 영어로 된 시험지를 받고 적지 않게 당황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명백히 드러났으며, 그 차이는 의미 있을 정도로 큰 것이었다. 시험지를 거두어 채점해 본 결과 학생들의 실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최대 100점에서 최저 40점까지 나왔고 평균은 60점을 조금 웃도는 성적이 나왔다. 잘하던 학생은 더 잘하게 되고 영어에 관심이 없던 학생은 더욱 더 실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수준차가 한국어로 가르쳤을 때보다 더 심하게 났다. 최대한 열심히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고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D 선도교사: 2008년 7월 9일)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도형 수업에서 ‘Test of the unit’라는 평가시간에 대한 수업일지 내용이다. 평면도형에서 삼각형에 대하여 학습한 결과를 평가해 보는

시간이었다.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 결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학급의 시험평균이 60점을 조금 넘어선 것을 보고 교사는 매우 실망하고 영어몰입수업으로 인해 학습자들의 수준차가 더 심해졌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Let's learn about different ways to add'이라는 학습목표 하에 진행된 3학년 수학교과 영어몰입수업에 대한 수업일지의 한 부분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덧셈을 해보고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계산방법을 발견해 보는 내용의 수업이었다. 수업일지 속에서 영어몰입수업을 현 교육과정대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고, 결국 교사가 수업내용을 재구성하지 못하여 학습 결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교실 현장의 문제점을 볼 수 있다.

> 학생들에게 왜 덧셈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지를 shortcut(지름길)의 단어를 설명해 주면서 좀 더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난 후, 몇 가지 문제를 함께 칠판에서 풀어보면서 익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성평가를 겸하여 수학 익힘책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한국어로 배워도 어려운 학습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 반에 몇 안 되는 똑똑한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영어로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꼈으며, 학습목표 도달도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다. 어떤 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칠판에서 눈을 돌렸으며 아예 수업 자체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아무리 애써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보지만 교육과정 자체가 아동들에게 어려움을 동반하는 것 같다. 영어로 배우는 수학 수업을 계획할 때는 수준을 조금 낮추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과정상의 내용을 충실히 가르치는 건 무리인 듯 하며 내용의 재구성이 필요한데, 교재 연구할 시간도 부족하고 어쨌든 학습 결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D 선도교사: 2008년 4월 4일)

학습자의 영어능력에서의 개인차로 인한 몰입수업의 어려움은 아래의 면담자료에서도 관찰된다.

> 저는 현재 2년째 담임교사로 내용중심 선도교사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내용중심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점은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너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를 고루고루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C 선도교사: 2009년 8월 30일)

또한 연구 참여자 교사들은 이러한 학생의 개인차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준별 이동식 수업과 수준별 교재의 사용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각자 개인의 학습 능력에 맞는 수업을 함으로써 누적되는 학습 결손을 줄이고 영어몰입교육의 질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 요즘에 들어서 수준별 학습지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더 요구되는 것 같다. 부진아동들에게는 다른 학습지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40분 수업 시간에 그들을 구제하기란 역부족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의 특성에 맞게 상중하 세 종류의 수준별 학습지를 준비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적인 자료 개발과 연계성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D 선도교사: 2008년 10월 30일)

수준별 수업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장에서는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함으로써 부가적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부담들 즉 타 학급 아동의 관리와 수준별 수업 과정 재구성 등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을 예상하여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또한 영어몰입교육 교재의 재구성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즉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재가 개발되어야 하며, 단순히 기존의 교과 교재를 영어로 번역하거나 일률적으로 편성된 교재는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3) 부족한 영어몰입수업 시수

현재 영어연구학교들은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시간을 쪼개어 영어몰입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 시간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학이나 과학 교과의 정규 시수 중에서 일정 차시는 정규 수학 수업을 하고 필요한 차시는 영어몰입수업을 실시하는 형태를 제안하였다.

>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일단 영어몰입교육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수가 확보되어야죠. 영어몰입 수업시수가 부족해요. 아이들이 일주일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당 2시간, 수학 1시간, 과학 1시간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그것으로는 전혀 영어의 몰입환경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수업이 끝나고 교실 밖에 나가거나 쉬는 시간 그 외 나머지 시간은 모두 한국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영어몰입환경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내용중심 영어교육 형태를 적용하여 지금은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현재의 재량시간, 특별활동 시간을 쪼개어 하는 수업으로는 영어 노출 기회가 적어 효과가 없을 듯합니다. (A 선도교사: 2009년 9월 15일)

> 저는 학교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량이나 특활도 정규 과목인데, 현재 시범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재량시간이나 특활시간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교과시간을 이용하여 영어몰입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 영어전담교사: 2009년 9월 11일)

> 그리고 주당 1시간만으로는 초보적인 노출 밖에 안되죠. 학습의 기본 조건이 feedback이고, practice고, 반복 학습인데 복습할 시간이 없죠. 사실 학생들은 내용중심수업을 하면서 배운 내용을 다른 과목처럼 적는다거나 필기도 안 해요. 그냥 듣고, 발표하고, 따라하고, 게임 활동하고 그러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 버려요. 학생들이 기억을 오래 하려면 복습 시간도 갖고 몸에 자연스럽게 체득될 수 있도록 계속 input 해 주어야 하고 계속적인 반복이 필요한데. 학교에 영어도서관도 있고, 영어 체험실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행사 있으면 가는 거죠. 이런 부족한 영어노출 환경에서 내용중심 수업은 하고 있지만 큰 성과는 없다고 봅니다. (C 선도교사: 2009년 8월 30일)

즉 이들 교사들은 현재 한 두 시간에 불과한 영어몰입 수업시수로는 영어노출의 기회가 적고 영어몰입환경의 구축이 어려워 비효과적이라는 견해를 표시했다. 영어몰입수업을 위한 시수는 주당 겨우 한 두 시간에 불과하여 반복과 형성평가의 기회가 부족하다. 따라서 학습의 전이도가 현저히 낮으며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족한 영어몰입 시수를 확보하고 영어노출 기회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편이 영어몰입교육 확대 실시 이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민찬규, 2008; 박준언, 박선호, 2007; 이병민, 2003; 한문섭과 현석분, 2008).

2. 영어몰입교육 확대 실시에 대한 우려

영어연구학교 교사들은 영어몰입교육을 확대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1) 몰입수업 담당 교사의 과도한 업무, (2) 사교육 조장 및 계층간 위화감 초래 가능성, (3) 타 교과 학습 결손, 그리고 (4) 전시적 행정 정책 등을 지적하였다.

1) 영어몰입수업 교사의 과도한 업무

영어몰입수업을 담당할 수업 주체에 대해, 연구에 참여한 선생님들은 '영어를 잘하는 담임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 담임교사가 영어몰입수업을 하기에 유리한 점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영어노출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 저 역시 담임으로서 우리 학교의 내용중심 선도교사를 맡고 있지만 학급의 담임으로서 학생들과 가질 수 있는 많은 시간과 기회 때문이지요. 아침부터 하교할 때까지 매일 매일 학급 아이들과 생활하는 속에서 수시로 영어의 노출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또한 자투리 시간 즉 아침 활동시간, 쉬는 시간,

>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습 예고나 형성평가, 결손아동과 부진 아동의 보충 지도, 과제 검사,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C 선도교사: 2009년 8월 30일)

무엇보다도 학급의 담임교사는 하루 종일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성향을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담임교사가 전담교사보다 학습 지도 측면에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담임교사의 몰입교육 담당은 수도권 지역의 몰입교사 5명의 몰입수업일지를 분석한 박선호와 최희경(2009)의 연구에서도 제안되었다. 이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담임이 몰입교육을 맡게 될 경우 몰입을 위한 사전 교육 즉 어휘 및 관련 표현들을 미리 학습시키는 것이 용이하며 탄력적인 시간 운영이 가능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면서 영어몰입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담임교사가 과연 얼마나 확보가 될 수 있는지, 또한 담임이 여러 가지 행정 업무 부담과 수업 부담을 함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10과목 이상을 가르쳐야 하는 담임교사가 한 과목의 몰입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타 과목의 수업 준비는 물론이며 학생 생활지도와 과제점검, 학년 업무, 부서 업무 등 또한 교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이다(한문섭, 현석분, 2008).

>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담임교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또 다른 중요 과목,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도 많은데, 내용중심수업 시간을 위하여 그렇게 담임이 준비가 될까요? 담임의 업무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하루 종일 학교 업무와 학년 업무에 시달리고, 학급 업무까지 하고, 교과도 한 두 교과가 아니고, 전담교사가 하는 과목을 빼더라도 거의 열 과목이나 되는데 언제 수준별 수업 자료 만들고, 학습 계획안을 짜고 ... (C 선도교사: 2009년 8월 30일)

> 영어몰입 선도교사가 해야 할 일은 영어 몰입수업 외에도 업무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수업의 부담에다 업무적인 부담까지 업고 선도교사를 하려고 하는 영어전담교사가 잘 없습니다. (B 영어전담교사: 2009년 9월 03일)

영어몰입수업의 확대 적용 실시에 앞서 이러한 영어몰입수업 담당 교사에 대한 다양한 현장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초등학교 여건에 적합한 수업 담당 주체를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또한 상급기관으로부터의 몰입교사를 위한 재정적, 물리적,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박선호, 2008; 박선호, 최희경, 2009).

2) 사교육 조장 및 계층간 위화감 초래 가능성

영어몰입교육을 확대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사교육의 조장과 계층간 위화감 초래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현장교사들은 영어몰입교육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영어에 관심이 더 많아지고 영어능력이 향상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사교육을 조장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

>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용중심 영어교육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교사들이 영어에 대해 관심이 무척 많아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부담도 커졌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부담도 증가했고요. 또 학부모들의 부담은 사교육의 증가도 초래하고 있다고 봐야죠. 학부모들이 말하길 아이가 영어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아지고 좋아하는데 반면에 영어에 시간과 교육비가 더 많이 든다고. 잘하는 아이는 학교의 영어교육에 만족을 못해 좀 더 높은 사교육 기관을 찾고, 못하는 아이는 실력을 보충하려고 사교육을 하고, 점점 수준차가 심해지고, 나중엔 계층 간 위화감마저 초래하죠. 우리 공교육 기관에서 교사들이 할 일은 모든 학생이 즐겁고 수준에 맞게 배울 수 있는 수업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게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인데. (C 선도교사: 2009년 8월 30일)

즉 영어몰입교육이 확대 실시될 경우 학생이 영어몰입수업을 무리 없이 따라가기 위해서는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영어수준차이도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실정인데, 영어몰입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영어수준이 높으면 높은 수준대로 낮으면 낮은 수준에서 남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사교육은 필연적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다.

3) 타 교과 학습 결손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영어몰입교육으로 인한 타 교과의 학습 결손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 영어몰입교육의 도입이 필요하고 확대 실시되어야 하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영어몰입 교육과정 때문에 기존의 교육과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영어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잃자는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B 영어전담교사: 2009년 9월 11일)

이론적으로 영어몰입교육은 영어능력 향상과 교과내용의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어몰입교육의 도입으로 기존의 교육과정이 흔들리거나 영어 외에 다른 과목과의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타 교과의 학습 결손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민찬규, 2008). 교사들의 영어몰입수업에 대한 부담과 수업을 위한 자료 준비에 대한 투자가 자칫 타 과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3년째 내용중심수업 선도교사로 영어몰입교육을 학교 현장에 시범 적용하고 있는 A 교사는 영어몰입교육보다는 영어교과 자체에 내실을 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본 영어 교과를 충실히 지도하여 학생들의 영어실력 안정을 꾀하고, 좀 더 높은 단계로의 학습 형태로 영어몰입교육을 제안하였다. 학생들이 영어몰입수업에 흥미 있게 참여하고 타 교과를 영어로 배우는 새로운 형태의 학습 방법에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하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 뒤에는 기본 영어 능력 부족 학생들과 교과학습 결손 학생들의 낮은 학습 참여도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내실 있는 영어교육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지요. 영어몰입교육보다는 오히려 영어 과목 자체를 심도 있게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영어몰입교육은, 제 생각에, 방과 후 수업으로 원하는 학생들, 정말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또 학교에서 그런 과정으로 가르쳐주면 학부모님들 호응도 괜찮을 거 같아요. (A 선도교사: 2009년 9월 15일)

4) 전시적 행정 정책

연구 참여자 교사들은 영어몰입교육의 확대 실시에 대해 무엇보다 교육의 본질을 흐리게 하지 않는 세심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바라고 있었다.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하는 계획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 제시된 면담자료에서 영어몰입교육이 학교의 현장을 외면하고 정책적으로 시행된다거나 혹은 전시적인 행정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연구학교 결과 보고에 가면 결과가 잘 안 됐다고 나온 학교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이들 영어능력도 향상되고, 학부모들 호응도 좋고.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 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뭔가 큰 걸 얻으려고 하는 그 점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지, 영어몰입교육을 시도하는 것 자체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어떤 작은 기본 계획부터 세워서 하나 하나 뭐든지 차근히 준비를 해서 이룩하려고 해야지, 지금 같은 전시성 행정 정책으로는 모래 위의 성 쌓기라는 생각입니다. 한꺼번에 뭐든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교육의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저는 교사로서 원하고 있습니다. (A 선도교사: 2009년 9월 15일)

또한 교사들은 영어몰입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점차적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영어몰입교육 시범학교를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리고, 교재를 개편 보완하고, 교육과정을 수정하여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래의 면담에서 B 교사는 영어몰입교육이 정해진 틀에서 적용되기 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몰입모형을 현장에서 실험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칠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내용중심 위주의 수업을 수학과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타 과목에도 접목해 보는 형식, 내용중심수업뿐만 아니라 주제중심의 통합형 영어몰입수업 시도, 대상 학년도 3학년 이상에서 저학년인 1~2학년에도 시범 실시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영어몰입교육이 지역별, 학교별 격차를 생각하여 학생들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수업할 수 있는 교사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제 영어는 거의 세계 공용어가 되어가는 시대라 생각합니다. 제주도 특별자치제와 경제자유구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한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은 대세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영어몰입교육 정책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영어몰입교육 정책이 정책적으로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점차적으로 시간이 좀 걸려도, 즉 시범학교를 점차 확대해서 적용하여 실시해보고, 그리고 현재 영어몰입, 내용중심 영어학습 등의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과목도 수학과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현재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미술, 음악, 체육 등 다양한 과목에도 접목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별, 지역별 적용 대상도 여러 가지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현재 3학년 이상의 학년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1학년부터 실시도 해보고. 영어몰입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학급과 학교에서 여러 교사들의 실험과 연구가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B 영어전담교사: 2009년 9월 11일)

영어몰입교육이 적용될 현장은 교실이다. 교실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있다. 교사의 영어몰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장기간에 걸쳐 영어몰입수업을 하루하루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 영어연구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교사의 수업일지를 분석하여, 그들이 실제 내용중심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생각들과 의견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아래 네 범주로 나누어 논의될 수 있다.[3]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영어연구학교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자신들의 부족한 영어몰입 수업능력, 학생의 수준차이로 인한 누적되는 학습 결손, 부족한 영어몰입수업 시수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영어몰입 교육과정에 있어서 체계적인 조직과 시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영어몰입 수업을 위한 교과서와 지도 지침 마련, 각종 학습자료 및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매시간의 수업을 위하여 교사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수업 준비 부담을 안게 된다면 교사들의 영어몰입수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후에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하루 종일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성향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담임교사가 학습 지도 측면에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들이 한 시간의 영어몰입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의 준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박선호(2009)가 제안하였듯이 영어몰입교사들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행정 업무 등을 경감시키고 교원 평가에서도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체제를 갖춤으로써 교사들로 하여금 도전의 의욕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영어몰입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영어몰입교육을 확대 실시할 경우 사교육이 조장되며 이로 인해 계층간 위화감이 심화될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이 영어몰입수업을 위해 쏟아 부어야 하는 시간 및 노력이 자칫 타 과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영어몰입교육보다는 영어교과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한 연구참여자의 의견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영어몰입교육의 확대 실시가 학교의 현장을 외면하고 정책적으로 혹은 전시적인 행정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려하며, 좀 더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를 원하였다. 따라서, 영어몰입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3]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수가 4명의 교사에 불과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영어몰입교육의 다각적인 측면을 조명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많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면 좀 더 다양한 측면의 논의가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료수집방법으로 면담과 수업일지만을 사용하였기에, 자료 수집 방법의 삼각측량(triangulation)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다. 셋째, 다른 평가자가 전사 과정에 그리고 내용분석을 통해 범주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평가자간 신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교육 정책자나 행정 전문가들은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조급하고 급진적이며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으로 현장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과 긴장감을 조성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의 질을 섣불리 수치화 또는 등급화 하여 그에 대한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 하려는 풍조는 교사들에게 강박 관념과 교육의 경제적 개념을 심화시켜 교육의 기본 개념을 흔들리게 할 것이다. 교사들의 불안감과 불신은 교실을 불안정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스럽게 할지도 모른다.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의 신뢰와 현장 교사들에 대한 교육 정책 담당자와 학부모, 학생들의 믿음은 영어몰입교육의 효과적인 확대 적용 실시에 있어서 보다 큰 부가적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박준언과 박선호, 2007).

이상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영어몰입교육의 확대 적용 실시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되고 논의된 영어몰입교육의 인식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들이 영어몰입교육의 확대 적용 실시에 보다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영향과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강용구. (1999). 동아시아의 몰입교육. *영어어문교육, 5*(1), 79-101.

강후동, 강혜영. (2009). 영어·미술 통합수업을 통한 내용중심 초등영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초등영어교육, 15*(1), 59-86.

김규현, 서경희, 박용예. (2000). 초등학교에서의 영어 몰입학습 프로그램 실시 방안 연구. *영어교육, 55*(2), 281-307.

김영철. (2005). 제7차 초등영어 교육과정의 현황에 관한 연구: 교사와 장학사 중심 설문 조사를 통하여. *초등영어교육, 10*(1), 5-42.

김정렬, 엄지현. (2006). 초등학교 영어·수학 통합 교육에서 CALLA의 적용 효과. *초등영어교육, 12*(1), 255-279.

민찬규. (2008). 영어 몰입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영어교과교육, 7*(1), 109-123.

박기화. (2003). 내용 중심 초등영어 교육에서의 학습전략 훈련 프로그램 모형 개발: CALLA의 적용 가능성. *초등영어교육, 9*(2), 55-91.

박선호. (2004). 영어 이머전 교육에 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외국어교육, 11*(4), 259-283.

박선호. (2006). 이중언어이론과 몰입식 영어교육. 고경석 외 (편). *초등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pp. 279-320). 서울: 한국문화사.

박선호. (2008). 몰입특별교사제를 통한 초등영어 몰입교육 사례 연구. *외국어교육, 15*(1), 309-332.

박선호. (2009a). 초등학교 몰입식 영어교육 사례 연구. *초등영어교육, 15*(2), 5-39.

박선호. (2009b). 초등학교 몰입식 영어교육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연구. *외국어*

교육, *16*(2), 131-160.
박선호, 최희경. (2009). 반성적 교수일지를 통해 본 초등학교 몰입식 영어교육의 실제. *영어교육*, *64*(4), 369-398.
박응준. (2008). *초등학교 체육교과의 영어몰입프로그램 실시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인천.
박준언, 김익상, 박선호. (2008). 몰입식 영어교육의 원리와 수업 모형. *영어교과교육*, *7*(1), 95-107.
박준언, 박선호. (2007).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초등영어몰입교육 도입 연구. *초등영어교육*, *13*(2), 247-285.
방상미. (2001). *초등영어교육 현장에서의 몰입학습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춘천.
변경미. (2008). *초등학교 미술과 영어몰입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분포초등학교. (2008). *분포초등학교: 영어교수-학습방법 정책 연구학교 운영보고서*. 부산: 분포초등학교.
센텀초등학교. (2008). *센텀초등학교: 영어교수-학습방법 정책 연구학교 운영보고서*. 부산: 센텀초등학교.
신연옥. (2000). 초등영어에서 주제 중심 통합 학습의 효과. *초등영어교육*, *6*(1), 91-120.
이병민. (2003). EFL 영어학습 환경에서의 학습 시간의 의미. *외국어교육*, *10*(2), 107-129.
이선아, 문태혁. (2004). 초등영어와 과학의 내용중심 통합 수업의 효과. *초등영어교육*, *10*(2), 159-199.
이희숙, 최지은. (2000). 내용중심 이야기활동 언어지도 방안: 초등 5학년 영어-수학 통합수업을 중심으로. *초등영어교육*, *7*(1), 133-157.
정동빈, 김지숙. (2008). 수준별 조기영어 몰입수업에서 형태초점 교수전략 효과 연구. *영어교육연구*, *20*(3), 254-278.
조윤경, 남경숙. (2009).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 영어교육연구학교 교사의 시각에서. *초등영어교육*, *15*(1), 5-29.
최미정, 정영숙. (2009). 주제중심의 초등영어 수준별 통합수업의 인지적·정의적 효과. *초등영어교육*, *15*(1), 31-57.
최연희. (2004). *수학교과를 통한 초등영어 몰입학습 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구.
최숙희. (2001). 대학생 몰입영어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발과 운영사례. *영어어문교육*, *7*(2), 187-210.
최태규. (2008). *초등학교 실과 영어 부분몰입학습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인천.
한문섭, 현석분. (2008). 한국에서의 몰입교육: 공교육의 몰입교육 적용을 위한

교사와 학생의 준비. *초등영어교육, 14(*3), 5-28.

허인선. (2004). *초등학교 미술과 영어 몰입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춘천.

화랑초등학교. (2008). *화랑초등학교: 영어교수-학습방법 정책 연구학교 운영보고서.* 부산: 화랑초등학교.

Brinton, D. M., Snow, M. A., & Wesche, M. B. (1989). *Content-based second language instruction.* New York: Newbury House.

Cummins, J. (1980). The construct of language proficiency in bilingual education. In J. E. Alatis (Ed.), *Georgetown University round table on languages and linguistics 1980* (pp. 81-103).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Cummins, J. (1984). Wanted: A theoretical framework for relating language proficiency to academic achievement among bilingual students. In C. Rivera (Ed.), *Language proficiency and academic achievement* (pp. 2-19).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Cummins, J. (2000). *Language, power and pedagogy: Bilingual children in the crossfir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Cummins, J., & Swain, M. (1986). *Bilingualism in education: Aspects of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London: Longman.

Lambert, W. E., & Tucker, G. R. (1972). *Bilingual education of children: The St. Lambert experiment.* Rowley, MA: Newbury House.

Lee, S. (2006). Developing science CBELT materials for Korean primary discretionary classes. *Primary English Education, 12*(2), 253-291.

Snow, M. A. (2001). Content-based and immersion models for second and foreign language teaching.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pp. 303-318). Boston: Heinle & Heinle.

Snow, M. A., Met, M., & Genesee, F. (1989).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language and content in second/foreign language instruction. *TESOL Quarterly, 23*(2), 201-217.

Swain, M., & Johnson, R. K. (1997). Immersion education: A category within bilingual education. In R. K. Johnson & M. Swain (Eds.), *Immersion education: International perspectives* (pp. 1-1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부 록

수학과 내용중심 영어교육(재량활동) 수업일지

XX초등학교

일시	2008 년 10월 7일		학반	6학년 1, 2, 4, 6반	
단원	Solid figures	차시	/	수업자	XXX
학습목표	Let's understand properties of many shapes.				
지도 내용	생각보다 학생들에게 입체도형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부족한 것 같아, 외국의 web site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적합한 worksheet를 발견하고 수업에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flat, curved와 같은 단어를 가르쳐주고 각각의 입체도형들에 대해서 설명한 후 그 worksheet를 풀어보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반응	6학년들을 가르칠 때에 가장 힘든 점은 수업 참여도가 적다는 것이다. 각 반에 한 5명씩은 공부 안하기로 작정한 듯하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다. 차라리 조용하고 아무도 발표에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라면 이해하겠지만, 돌아다니고 뛰어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반은 수업조차 하기 싫을 때가 많다.				
문제점	worksheet를 풀어보라고 나누어 줬더니 절반의 학생들이 놀고 있었다. 도무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교사도 가르칠 때 재미가 있어야지 의욕도 생기고 좋을텐데 교사의 의지마저도 꺾어버리는 분위기는 너무나 자괴감이 들게 할 뿐이다.				
수업 후 개선점	수업을 좀 더 구조화 시킨다면 학생들이 수업에 잘 참여할 것 같ㅇ다는 생각이 든다. 잘 짜여진 수업은 고학년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좀 더 고학년 수업을 구조적으로 계획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남경숙
개림초등학교
608-737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 3동 산 22번지
Tel: 051-896-9081
Email: sirsir59@hanmail.net

조윤경
부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608-737 부산시 남구 대연 3동 599-1
Tel: 051-629-5384
Email: ykcho@pknu.ac.kr

Received in July 15, 2010
Reviewed in August 20, 2010
Revised version received in September 15, 2010